

‘畢’字上古韻尾攷^{*}

金俊秀^{**}

<목 차>

1. 緒論
2. 畢字의 두 가지 來源
3. 楚簡文字에서의 畢字 — 用例
4. 楚簡文字에서의 畢字 — 字形
5. 質部二分說
6. 畢字의 上古再構音
7. 結論

1. 緒論

清代의 古音 연구는 《詩經》押韻과 《說文解字》에 수록된 諧聲字 등 漢語 內部資料에만 의거하여 進行되었다. 이에 반해 현대의 上古音 연구는 親族言語 와의 同源語彙 비교 등 漢語外部資料에서도 적극적으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그런데 근래 대량으로 輸出되고 있는 古文字資料는 上古漢語를 기록한 텍스트라는 점에서 上古音 再構에 직접적으로 活用될 수 있는 새로운 漢語內部資料라고 할 수 있다.

최근 古文字學界에서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새로운 연구 성과들은 上古音 연구에 훌륭한 자료로서 쓰이고 있는데, 梅祖麟(2006) 및 후루야 아키

* 본 논문은 2012년 5월 26일 梨花女大에서 개최된 韓國中語中文學會 春季學術大會에서 발표한 발표문을 기초로 하여 수정 및 보완을 가한 것이다. 지정 토론자로서 여러 가지 귀중한 의견을 주신 慶熙大 文炳淳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 漢陽大學校 講師.

히로(古屋昭弘 2006)가 美字의 上古韻部를 脂部에서 微部로 바꾼 것이나¹⁾, 周波(2008)가 侮字를 侯部에 귀납시킨 것²⁾, 趙彤(2003) 및 윌리엄 백스터(William H. Baxter 2010)가 設字의 上古聲母를 無聲軟口蓋鼻音으로 再構한 것³⁾, 金俊秀(2012)가 造字의 上古聲母를 摩擦音으로 再構한 것⁴⁾ 등이 古文字學의 새로운 성과를 上古音 연구에 적극 활용한 결과이다.

本稿에서는 楚簡文字에서 暴으로 읽히는 글자가 畢字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質部字인 畢의 上古韻尾가 軟口蓋破裂音이었을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하며, 더불어 親族言語와의 同源語彙 비교 결과를 활용하여 이 가설을 뒷받침한다.

2. 暴字의 두 가지 來源⁵⁾

暴字는 ‘사납다 포’와 ‘찌다 폭’의 두 가지 訓讀이 있는데⁶⁾, 본래 다른 글자로

-
- 1) 梅祖麟, <從楚簡‘攸(美)’字來看脂微兩部的分野>, 《語言學論叢》 第32輯, 北京: 商務印書館, 2006年1月, 173-192쪽. 古屋昭弘, <儒教と中國語學 —出土文獻と上古音—>, 土田健次郎編, 《近世儒學研究の方法と課題》, 東京: 汲古書院, 2006年2月第1版, 208쪽.
 - 2) 周波, <‘侮’字歸部及其相關問題考論>, 《紀念中國古文字研究會成立三十週年國際學術研討會》, 吉林: 長春大學古籍研究所, 2008年10月11-12日, 113-123쪽.
 - 3) 趙彤, 《戰國楚方言音系》, 北京: 中國戲劇出版社, 2006年5月第1版, 63쪽. 原本: 趙彤, 《戰國楚方言音系研究》 北京: 北京大學博士學位論文, 2003年. William Hubbard Baxter, <‘夬’、‘勢’、‘設’等字的構擬和中古sy- (書母=審三)의 來源>, 《簡帛》 第5輯,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10年10月, 161-177쪽.
 - 4) 金俊秀, <‘造’字諧聲攷>, 《中國言語研究》 第38輯, 서울: 韓國中國言語學會, 2012年2月, 183-209쪽.
 - 5) 익명의 십사위원으로부터 來源을 적절한 한국어 어휘로 수정할 것을 권유받았다. 來源은 우리말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아닐 뿐더러 국어사전에도 실려 있지 않으므로, 필자 역시 초고 작성 시부터 적절한 우리말 譯語를 찾기 위해 고심했었다. 國內의 중한사전에는 ‘내원’·‘근원’·‘출처’·‘원산지’·‘생산지’·‘기원하다’·‘유래하다’ 등의 대역어가, 중일사전에는 ‘來源’·‘出どころ’·‘生産元’·‘ソース’ 등의 대역어가 제시되어 있고, 영한사전에서는 source의 대역어로 ‘수원지’·‘원천’·‘근원’·‘원인’·‘공급원’·‘출처’·‘소스’ 등이 제시되어 있는데, 본고에서 사용된 來源이란 단어를 번역하기에는 來源을 그대로 음독한 ‘내원’ 외에는 딱히 들어맞는 표현이 없다고 생각되어 부득이 그냥 來源을 사용하였음을 밝힌다. 물론 ‘내원’이 우리말 어휘로 흡수되지 못한 현시점에서 이는 임시방편책에 불과하다.

기록되었던 별개의 어휘를 하나의 글자로 병합하여 쓰게 된 것이다. (병합의 시초는 戰國文字에 이미 보인다. 아래에 詳述.)

上古音	中古音	現代音
*bo:wgs 藥部	bau 薄報切 (並母号韻開口一等去聲) 侵暴也。急也。	포 / pau\
*bo:g 屋部	buk 蒲木切 (並母屋韻合口一等入聲) 日乾也。	폭 / p ^h u\ 7)

‘사납다 포’는 甲骨文과 金文에서 본래 ‘虓’와 같이 썼는데, 唐蘭(1976)과 裘錫圭(1976)에 의해 暴(사납다 포)로 釋讀되었다. 裘錫圭(1976)는 虓는 𠂔(戈)으로 범[虎]를 공격하는 모습을 會意한 글자라고 풀이하였다.⁸⁾ 傳世本 《周禮》에는 戈가 武로 바뀌어 ‘虓’와 같이 쓰여 있는데⁹⁾, 徐鉉이 底本으로 삼았던 《說文》에는 이 글자가 실려있지 않았던지, 大徐本에 新附字로서 추가되어 있다. 《說文·虎部》: “虓, 虐也。急也。從虎、從武。見《周禮》。薄報切。”(虓, 잔학하다. 급격하다. 虎를 따르고 武를 따른다. 《周禮》에 보인다. ‘포’라고 읽는다.)

6) 현대 중국어의 경우 대만에서는 여전히 暴露(p^hu\ lu\)·曝光(p^hu\ kwɑŋ\)으로 읽어 暴力(pau\ li\)·殘暴(ts^hɑŋ\ pau\)와 구분을 하지만, 중국 대륙에서는 이 異讀辨義를 무시하고 일률 pau\로 읽는 것을 표준으로 정하였다. 일본어는 대만식 중국어와 마찬가지로 이 구분을 유지하고 있어서, ‘짜다 폭’은 ばく(吳音 ぼく에서 변해온 慣用音)로 읽고, ‘사납다 포’는 ぼう(吳音)로 읽는다. 예: 暴露(ばくろ)·暴力(ぼうりょく). 한국어에서는 橫暴·自暴自棄 등 일부 어휘를 제외하고는 ‘사납다 포’도 ‘폭’으로 읽게 되어 이 구분이 붕괴되고 말았다. 예: 暴露(폭로)·暴力(폭력). 그러나 本稿에서는 ‘폭’과 ‘포’를 구분하여 읽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助詞를 단다.

7) 再構音은 鄭張尙芳(2003)을 따랐다.

8) 唐蘭, <用青銅器銘文來研究西周史— 綜論寶鷄市近年發現的一批青銅器的重要歷史價值>, 《文物》1976年第6期, 31-39쪽. 裘錫圭, <說‘玄衣朱襮’— 兼釋甲骨文‘虓’字>, 《文物》1976年第12期, 75-76쪽.

9) 《周禮·地官司徒》: “司虓: 掌憲市之禁令, 禁其鬥鬪者與其虓亂者, 出入相陵犯者, 以屬遊飲食于市者. 若不可禁, 則搏而戮之.”(‘司虓(사포)’라는 직무는 市場의 각종 금지령을 알리는 일을 掌管한다. 시장을 소란스럽게 하는 자, 폭력을 사용하는 자, 드나들면서 법규를 위반하는 자, 할 일 없이 먹고 마시며 오가는 자를 단속한다. 만약에 경고하였음에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司虓’는 그들을 무력으로 다스릴 수 있다.)

‘죄다 폭’은 《說文》에 다음과 같이 풀이되어 있다. 《說文·日部》：“𩇛，晡也。從日、從出、從収、從米。薄報切。𩇛，古文𩇛，從日、廙聲。”(𩇛, 햇볕에 말리다. 일을 따르고, 출을 따르고, 収를 따르고, 米를 따른다. ‘포’라고 읽는다. 𩇛, 古文이다. 일을 따르고, 廙에서 소리를 얻는다.) 침언하자면, 暴(죄다 폭)은 入聲字이므로 大徐本の 薄報切(포)은 잘못된 注音이다. 《廣韻》의 蒲木切(폭)이 정확한 독음이다.







《說文》에는 米를 따르는 暴(폭)字 외에 𣎵(나아가다 도/ʰauŋ)를 따르는 暴(포)字도 수록되어 있다. 《說文·辵部》：“𣎵，疾有所趣也。從日出辵収之。薄報切。”(暴, 빠르게 가다. 日·出·辵·収를 따른다. ‘포’라고 읽는다.) 許慎의 釋義로 보아 暴(포)는 𣎵(포)의 한 가지 引伸義인 ‘빠르다(急也)’만을 적기 위해 별도로 만들어진 글자로 보인다. 그런데, 古文字資料에 근거하여 보면, 暴(폭)과 暴(포)에 대한 《說文》의 字形分析은 정확한 것이 아니다. 裘錫圭(1988)는 曾侯竹簡의 𣎵(박)字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두 글자(引按: 暴과 暴을 지칭)가 따르는 𣎵은 《說文》小篆의 出字와 형태가 다르다.(引按: 出字의 小篆體는 𣎵과 같다.) 曾侯乙墓의 竹簡文字에 市(슬잡 불)을 따르고 𣎵에서 소리를 얻는 글자가 있다. 𣎵은 두 손으로 풀이나 나무를 들고 햇볕을 쬐이고 있는 모습을 본뜬 글자로, 暴字의 初文임에 틀림없다. 𣎵과 같이 隸定할 수 있다.¹⁰⁾

裘氏가 언급한 曾侯竹簡의 𣎵字는 𣎵(수놓은 것 박)의 異體로 실제 字形은 다음과 같다.

10) 원문은 다음과 같다. “這兩個字所從的‘𣎵’, 跟《說文》‘出’字篆文不同形。曾侯乙墓竹簡文字裏有從‘市’‘𣎵’聲之字。‘𣎵’像兩手持草木一類東西在日下曝曬, 應該就是‘暴’字的初文, 可以隸定爲‘異’。” 裘錫圭, 《文字學概要》臺灣正體版, 臺北: 萬卷樓圖書股份有限公司, 2002年7月再版第5刷, 155쪽. 본고에서 의거한 것은 대만판이며, 대륙판 초판의 발행 일자는 1988年 8月이다.

【字形表-01】

					
1) 曾侯4	2) 曾侯8	3) 曾侯45	4) 曾侯53	5) 曾侯55	6) 曾侯58

左旁은 市(슬갑 불)로 襪이 따르는 衣와 역할이 같다. 古文字에서 흔히 보이는 義近義符 통용의 한 예이다. 그런데 右旁인 暴은 《說文》小篆體 𩇛(暴)과 구조가 다르다. 日과 収를 따르는 것은 동일하지만, 米를 따르지 않을 뿐더러 日과 収의 사이가 出이 아니고 丰이다. (小篆 𩇛에서 日과 収 사이의 字素 역시 裘氏가 지적한대로 出이 아니고 丰의 訛變임에 틀림없다.) 周鳳五(2002)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이 글자에서 日을 제외한 아랫부분은 실상 彘으로 다름 아닌 奉(奉)字의 初文이다.¹¹⁾ 그러므로 이 襪字의 右旁은 ‘暴’과 같이 精密隸定할 수 있다. 위에 인용한 裘文에서의 ‘異’은 隸楷書의 書法에 근거한 簡略隸定이다.¹²⁾




이와 같은 古文字 字形에 근거하여 ‘두 손(収)으로 풀(丰)을 들고 나와 햇빛(日)에 말리는 것’이 曷(曷)字의 造字本義라고 판단할 수 있다. 아마도 여기에서 ‘드러내다’·‘나타내다’와 같은 의미가 파생되어 나왔을 것이다. 裘氏는 暴(옷깃 폭)과 𩇛(하소연하다 포)가 《說文》에는 暴省聲이라고 풀이되어 있지만, 실상은 曷(曷)에서 소리를 얻는 形聲 구조라고 하였다. 그의 說은 지극히 타당하며, 暴(포) 역시 曷(曷)에서 소리를 얻고 収에서 의미를 얻는 形聲字임에 틀림없다. 暴(폭)은 初文인 曷(曷)에 米를 덧붙여서 이뤄진 글자인데, 丰을 따르고 있음에도 다시 米를 추가한 것은 丰의 형체가 訛變된 까닭일 것이다.

11) 周鳳五, <郭店<性自命出>‘怒欲盈而毋暴說’>, 《新出土文獻與古代文明研究》, 上海: 上海大學出版社, 2004年4月第1版, 186쪽. 原發表: 新出土文獻與古代文明國際學術研討會, 上海: 上海大學, 2002年7月28日-30日.

12) 본 논문의 초고에서는 중국식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여 嚴式隸定·寬式隸定이라고 하였으나, 익명의 심사위원으로부터 적절한 우리말 번역어를 사용할 것을 권유받았다. 매우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하며, 언어학계에서 narrow transcription을 精密轉寫(혹은 表記)로, broad transcription을 簡略轉寫(혹은 表記)로 번역하는 것에 착안하여, 精密隸定·簡略隸定이란 용어로 수정하였다.

후세에 계승된 것은 米가 추가된 자형인데, 初文인 曩(冥)은 隸變 이후 漢隸에서 다양하게 변화되었다. 아래 字形表를 본다.

【字形表-02】

 1) 西狹頌 建寧四年(171年)	 2) 尹宙碑 熹平六年(177年)	 3) 校官碑 光和四年(181年)	 4) 曹全碑 中平二年(185年)
---	---	---	---

字形4와 같이 曩이 日과 共을 따르는 형체(冥)로 類化된 書法이 楷書로 이어졌는데, 여기에서 米旁까지도 水旁으로 訛變된 ‘暴’과 같은 字形이 크게 유행하였는지 《干祿字書》에서 이미 ‘暴’을 正體로 세우고 있다.¹³⁾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사납다 포’는 甲骨文과 金文에서는 본래 ‘𧇗’와 같이 썼고, 일부 傳世文獻에서 ‘𧇗’와 같이 쓴 것이 보인다. ‘찌다 폭’은 본래 ‘曩’과 같이 썼는데, 漢隸는 여기에 米를 덧붙인 書法을 계승하여 ‘暴’과 같이 썼고, 楷書에서는 가일층 訛變되어 ‘暴’과 같이 쓰게 되었다. 그런데 隸書와 楷書에서는 ‘𧇗(𧇗)’字를 사용하지 않고 ‘暴’字로서 ‘사납다 포’와 ‘찌다 폭’을 병합하게 적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暴字는 本音義인 ‘찌다 폭’ 외에 假借音義인 ‘사납다 포’를 더불어 갖게 된 것인데, 本義를 기록하기 위한 後起本字로서 曝字가 만들어지기도 했으나, 燃¹⁴⁾이나 暮¹⁵⁾ 혹은 圃¹⁶⁾처럼 전면적으로 사용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예를 들어 ‘폭로’는 曝露로 쓰지 않고 여전히 暴露로 쓴다.) 本稿의 이하 서술에서는 ‘사납다 포’와 ‘찌다 폭’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 ‘𧇗’와 ‘暴’를 사용하고, 때에 따라 한글 독음도 併記함으로서 혼동을 피한다.

13) 中華民國教育部國語推行委員會, 《異體字字典》, <http://dict.variants.moe.edu.tw>, 暴字條.

14) 燃은 然의 後起本字이다.

15) 暮는 莫의 後起本字이다.

16) 圃는 韋의 後起本字이다.

3. 楚簡에서의 暴字 一 用例

이어서 楚簡에 보이는 暴字 및 그와 관련된 字形을 나열한다.

【字形表-03】

 1) 郭店. 性自命出.簡64	 2) 上博(二). 從政甲.簡15A	 3) 上博(二). 從政甲.簡15B	 4) 上博(二). 從政甲.簡18
 5) 上博(二). 容成氏.簡37	 6) 上博(三). 彭祖.簡2	 7) 上博(五). 鬼神之明.簡1	 8) 上博(五). 鬼神之明.簡3

郭店楚簡에서 字形1이 처음 출현했을 당시, 原考釋(1998)에서는 未釋字로 남겨놓았고¹⁷⁾, 뒤이어 ‘希’로 釋讀하는 說¹⁸⁾, ‘轟’으로 釋讀하는 說¹⁹⁾ 등이 나왔으나, 周鳳五(2002)가 ‘暴’으로 읽어낸 이래²⁰⁾, 上博楚簡에서 관련 자형이 계속 등장하면서 周氏의 釋讀이 옳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하 字形1~8에 대해서 略述한다. (竹簡의 문장 속에서 字形1~8은 △로 표기한다.)

17) 荊門市博物館編·裘錫圭案語, 《郭店楚墓竹簡》, 北京: 文物出版社, 1998年5月第1版, 181쪽.

18) 李零, 《郭店楚簡校讀記(增訂本)》,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2年9月第2刷, 115쪽.

19) 劉釗, <讀郭店楚簡字詞札記>, 《郭店楚簡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武漢: 武漢大學中國文化研究院, 2000年5月第1版, 89쪽.

20) 周鳳五, <郭店<性自命出>‘怒欲盈而毋暴’說>, 《新出土文獻與古代文明研究》, 上海: 上海大學出版社, 2004年4月第1版, 186쪽. 原發表: 新出土文獻與古代文明國際學術研討會, 上海: 上海大學, 2002年7月28日-30日.

(1) 字形1, 《郭店·性自命出》簡64: “怒欲盈而毋△, 進欲遜而毋巧。”(분노가 마음속에 가득 차더라도 겉으로 드러내지 말며, 나아갈 때는 잔꾀를 부리지 말고 겸손해야 한다.)²¹⁾ 暴(폭)의 造字本義는 ‘햇볕을 쬐여 말리다(曝曬)’인데, 여기에서는 引伸義인 ‘드러내다[暴露]’로 쓰였다.

(2) 字形2·3, 《上博(二)·從政(甲)》簡15: “毋△、毋虐、毋賊、毋貪。不修不武, 謂之必成, 則△; 不教而殺, 則虐; 命無時, 事必有期, 則賊; 爲利枉事, 則貪。”(‘暴’하지 말고, ‘虐’하지 말고, ‘賊’하지 말고, ‘貪’하지 마라. 文과 武가 모두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결과를 내라고 요구하는 것이 ‘暴’이다. 백성을 교화로 이끌지 않고 함부로 죽이는 것이 ‘虐’이다. 아무 때나 명을 내려서 기한 내로 일을 마칠 것을 요구하는 것이 ‘賊’이다. 이익만을 위해서 원칙을 어기는 것이 ‘貪’이다.)²²⁾ 字形1과 字形2·3은 기본적으로 구조가 같은데, 字形1은 暴(폭)으로 읽어야 하는데 비하여 字形2·3은 赧(포)로 읽는다.²³⁾ 과거 暴(폭)과 赧(포)가 병합된 것은 隸變 이후로 여겨졌었는데, 戰國時代 楚文字에서도 이미 그端倪가 보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楚文字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睡虎地秦簡·日書(甲)》: “早及暴風雨”(가뭄과 폭풍우)의 暴字는 暴(暴)와 같이 쓴다.²⁴⁾ 즉, 이미 暴(폭)으로 赧(포)를 대신한 것이다. 관련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현실점에서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暴(폭)과 赧(포)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字形으로 병합하여 쓰는 俗風은 戰國時代에 이미 꽤나 광범위하게 유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3) 字形4, 《上博(二)·從政(甲)》簡17~18: “小人先人則絆敵之, 後人則△毀之.”(소인배는 남보다 앞서게 되면 남을 막으며, 남보다 뒤떨어지게 되면

21) 周鳳五(2002)에 근거하여 번역하였다.

22) 陳美蘭(2003)에 근거하여 번역하였다. 陳美蘭, <<從政>譯釋>, 季旭昇師主編, 《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二)》讀本》, 臺北: 萬卷樓圖書股份有限公司, 2003年7月第1版, 57쪽.

23) 周鳳五는 이 글자가 《郭店·性自命出》에 이미 출현했었음을 지적하면서 역시 暴으로 釋讀해야 하는데, 《郭店·性自命出》의 暴字와는 달리 ‘드러내다(짜다 폭)’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하였다. 周鳳五, <讀上博楚竹書<從政>甲篇筭記>, 《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研究續編》, 上海: 上海書店出版社, 2004年7月第1版, 187쪽. 原發表: 簡帛研究網(<http://www.jianbo.org>), 2003年1月10日.

24) 袁仲一·劉鈺, 《秦文字類編》, 西安: 陝西人民教育出版社, 1993年11月第1版, 671쪽.

단박에 남에게 휘방을 놓는다.)²⁵⁾ 字形4는 𣪠(포)로 읽고, 急也로 풀이할 수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字形4의 下半部는 字形1·2·3과 달리 𣪠을 따르지 않고, 戠를 따른다는 점이다. 戠은 金文(師奎父鼎·休盤·寰盤)에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𣪠으로 풀이된다.²⁶⁾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戰國時代 楚簡文字와 秦隸에서 이미 暴(폭)으로 𣪠(포)를 대체하는 용법이 보인다. 隸變 이후 이러한 音近代替가 주류가 되어 𣪠(포)는 死字가 되고 말았지만, 戰國時代 楚地の 書寫者에게는 여전히 暴(폭)과 𣪠(포)를 구분해야 한다는 의식이 일부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기에 𣪠(포)로 쓰이는 경우 下半部의 𣪠을 戠(戠)으로 교체한 字形을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했던 것은 아닐까 판단된다.

(4) 字形5, 《上博(二)·容成氏》簡37: “伊尹既已受命, 乃執兵禁△。”(伊尹²⁷⁾이 이미 명을 받아, 무기를 들고 잔폭한 행위를 금지시켰다.)²⁸⁾ 陳劍(2003)이 暴으로 釋讀하였다.²⁹⁾ 字形5는 𣪠(포)로 읽는데, 특이한 사실은 疒旁이 덧붙여져 있다는 것이다. 劉釗(2002)는 고대인들의 관념 속에 질병은 심리작용과 관련이 있다고 여겨졌었기 때문에 전국문자에서 心旁과 疒旁이 互用되는

25) 陳美蘭(2003)에 근거하여 번역하였다. 陳美蘭, <<從政>譯釋>, 季旭昇師主編, 《《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二)》讀本》, 臺北: 萬卷樓圖書股份有限公司, 2003年7月第1版, 58쪽.

26) 戠字는 宋代 이후 𣪠으로 釋讀하여왔다. 《金文編(第四版)》에도 역시 戠字條에 수록되어 있다. 타카다 타다치카(高田忠周)는 藏(자/tsɿ\)로 풀이하고 𣪠으로 읽었다. 말하길, “字明從肉、從戈。……藏之省文也。藏、𣪠古音同部。故諸器皆借藏爲𣪠也。”(이 글자는 분명히 肉과 戈를 따른다. …… 藏의 생략체이다. 藏과 𣪠(戠)은 古韻部가 같다. 그러므로 여러 청동기 銘文에서 藏을 빌려서 𣪠을 적은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藏는 之部字이고 𣪠은 鐸部字이므로 通轉이 곤란하다. 郭沫若 역시 藏의 생략체로 보았지만 𣪠으로 읽는 것은 반대하였다. 季旭昇師는 현재로서는 이 글자의 釋讀을 확정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임시로 舊說을 따라 戠을 𣪠(戠)字條에 넣는다고 하였다. 본문 역시 師說을 따른다. 타카타氏의 설과 郭氏의 설은 《古文字詁林》에서 재인용. 古文字詁林編纂委員會, 《古文字詁林》第4冊, 上海: 上海教育出版社, 2001年12月第1版, 490-491쪽, 藏字條. 季旭昇師, 《說文新證》下冊, 臺北: 藝文印書館, 2004年11月第1版, 196-197쪽, 𣪠(戠)字條.

27) 商나라 초기의 승상. 伊는 이름이고, 尹은 관직명이다.

28) 蘇建洲(2003)에 근거하여 번역하였다. 蘇建洲, <<容成氏>譯釋>, 季旭昇師主編, 《《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二)》讀本》, 臺北: 萬卷樓圖書股份有限公司, 2003年7月第1版, 160쪽.

29) 陳劍은 禁暴으로 連讀하는 것이 본래 董珊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陳劍, <上博簡<容成氏>의 拚合與編連問題小議>, 《上博館藏戰國楚竹書研究續編》, 上海: 上海書店出版社, 2004年7月第1版, 334쪽. 原發表: 簡帛研究網(<http://www.jianbo.org>), 2003年1月9日.

경우가 보인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병세가 위독하다는 의미의 ‘篤’으로 읽히는 글자인 𢇛(贖)(望山楚簡62)은 𢇛(贖)(望山楚簡50)과 같이 疒旁이 心旁으로 교체된 자형이 보이기도 한다.³⁰⁾ 字形5에서의 疒旁도 心旁과 유사한 의미로서 덧붙여진 것은 아닐까? 물론 이 疒旁이 특별히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戰國文字에서 흔히 보이는 無義偏旁으로 土·厂·立·口 등이 있는데,³¹⁾ 이 疒旁도 飾符에 불과한 것일 수 있다.

(5) 字形6, 《上博(三)·彭祖》簡2: “天地與人, 若經與緯, 若△與裏。”(天地와 사람과의 관계는 씨줄과 날줄과 같고, 길과 속과 같다.)³²⁾ 徐在國(2004)은 字形6을 褓의 繁體로 풀이하고 簡文에서 表로 읽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다. 字形6의 왼쪽은 糸旁을 따르고 오른쪽은 衣旁을 따르는데, 衣旁 사이에 들어간 𢇛이 바로 暴의 생략체로 이 글자의 聲旁 역할을 한다는 것이 徐氏의 字形分析이다. 表와 暴은 聲母가 모두 唇音이고, 表의 上古韻部는 宵部이고 暴의 上古韻部는 藥部이므로 陰入對轉의 관계에 있다.³³⁾

(6) 字形7·8 《上博(五)·鬼神之明》簡1: “賞善罰△。”(‘善한 자에게는 상을 내리고, ‘暴한 자에게는 벌을 준다.) 《上博(五)·鬼神之明》簡3: “善者或不賞, △者或不罰。”³⁴⁾(‘善한 자에게 간혹은 상을 내리지 않고, ‘暴한 자에게 간혹은 벌을 내리지 않는다.) 《上博(五)·鬼神之明》의 原整理者인 曹錦炎(2005)은 《墨子》에 ‘賞善罰暴’이나 ‘賞賢罰暴’과 같은 표현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와 대조하여 보았을 때 字形7·8을 ‘暴’으로 釋讀하는 것이 틀림없다고 하였

30) 贖은 疒과 𠂔·人·貝의 결합이다. 疒을 제외한 부분은 債으로 債(옥/y\N)字의 異體이다. 劉釗, <釋債及相關諸字>, 《出土簡帛文字叢考》, 臺北: 臺北古籍出版有限公司, 2004년 3월 1판, 120-129쪽. 原掲載: 《中國文字》 新28期, 2002년 12월.

31) 何琳儀, 《戰國文字通論(訂補)》, 南京: 江蘇教育出版社, 2003년 1월 1판, 215-220쪽.

32) 李綉玲(2005)에 근거하여 번역하였다. 李綉玲撰寫·季旭昇師訂改, <<彭祖>譯釋>, 季旭昇師主編, 《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三)》讀本》, 臺北: 萬卷樓圖書股份有限公司, 2005년 10월 1판, 248쪽.

33) 徐在國, <上博竹書(三)札記二則>, 《古文字研究》 第27輯, 北京: 中華書局, 2008년 9월 1판, 444쪽. 原發表: 簡帛研究網(<http://www.jianbo.org>), 2004년 4월 26일.

34) □ 안의 글자는 原竹簡에는 殘缺된 글자인데, 整理者인 曹錦炎이 앞뒤 문맥에 근거해 보충해 넣은 것이다.

다.³⁵⁾ 여기에서의 暴字는 물론 𡗗(포)이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字形1~5·7·8을 暴으로 釋讀하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字形1은 暴(폭)이고 字形2~5·7·8은 𡗗(포)이다. 字形6을 襍으로 풀이하고 表로 읽는 것 역시 매우 타당하다. 그런데 楚簡文字에서 暴字는 왜 이러한 구조를 갖게 되었을까? 이어서 이 글자들의 字形에 대하여 토론한다.

4. 楚簡에서의 暴字 — 字形

최초로 이 글자들을 暴으로 읽어낸 周鳳五(2002)는 郭店楚簡의 𡗗字(【字形表-03】의 字形1)를 𡗗와 暴을 합쳐서 만든 글자라고 보았다. 윗부분의 교차선은 𡗗가 따르는 疋의 訛變이고, 그 아랫부분은 曾侯乙墓 竹簡에 보이는 襍字가 따르는 暴旁과 같다고 하였다.³⁶⁾ 그런데, 𡗗의 윗부분 교차선을 疋의 訛變으로 보는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아랫부분을 曾侯竹簡 襍字의 右旁과 같은 구조로 보는 견해 역시 형태상 무리가 있다. 【字形表-0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曾侯竹簡 襍字가 따르는 暴旁은 日과 擘(奉)의 初文인 𡗗을 따른다. 이 ‘暴’과 《睡虎地秦簡·日書(甲)》의 ‘暴’ 및 小篆 ‘暴’ 사이에는 丰이 卍形으로 訛變되었을 뿐 명백한 형태적 일관성이 있다. 그런데 楚簡에서 暴으로 읽히는 글자들의 형태는 이 秦系文字들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 【字形表-03】에서 나열했던 楚簡文字들은 그 형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세 가지 부류로 大別하여 볼 수 있다.

35) 曹錦炎, <鬼神之明 祝融有成氏>, 馬承源主編, 《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五)》,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5年12月第1版, 311쪽.

36) 周鳳五, <郭店<性自命出>‘怒欲盈而毋暴’說>, 《新出土文獻與古代文明研究》, 上海: 上海大學出版社, 2004年4月第1版, 186쪽. 原發表: 新出土文獻與古代文明國際學術研討會, 上海: 上海大學, 2002年7月28日-30日.

【字形表-04】

 A	 B	 C
--	--	--

어느 것이건 아랫부분이 𠄎을 따른다는 것 외에는 秦系의 暴字 書法과 유사점이 없다. 𠄎이 𠄎과 같이 訛變되었을 가능성은 없으며, 周氏가 근거하였던 郭店楚簡 字形의 윗부분은 교차선이지만(字形C), 뒤이어 출토된 上博楚簡 字形들을 보면 𠄎과 같이 쓰는 것이 주종을 이루며(字形A), 간혹 그 위에 가로획들을 덧붙인 자형도 보인다.(字形B) 어느 것이건 형태상 𠄎과 연관 짓기는 어렵다. 周氏가 暴으로 읽어낸 것은 정확하지만, 이는 주로 문맥에 근거한 것으로[辭例推勘法], 그의 字形分析은 釋讀해낸 결과에 억지로 짜맞춘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楚簡에서 暴으로 읽히는 이 글자들의 구조에 대하여 禰健聰(2005)은 새로운 의견을 내놓았다. 그의 주장을 간단히 요약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1) 《上博(二)·容成氏》에 𠄎(簡1)字와 𠄎(簡9)字가 있는데, 原整理者 李零(2002)이 遲로 精密隸定하고, 畢로 釋讀하였다. 包山楚簡에도 畢字 및 畢旁을 따르는 글자가 많이 등장하는데, 字形이 《上博(二)·容成氏》의 遲字가 따르는 畢旁과 같거나, 대단히 유사하다.

(2) 《上博(二)·容成氏》와 包山楚簡의 畢字 및 畢旁에 근거하여 보건데, 楚簡에서 暴으로 읽히는 글자들은 사실상 畢字이다. 畢은 幫母質部에 속하고, 暴은 並母藥部에 속한다. 幫母는 모두 唇音이나, 韻部가 가깝지 않다. 그러나 古書에 畢과 暴이 통용된 예가 있다. 《史記·楚世家》: “葦路藍蕪。”《集解》에서 徐廣의 설을 인용하여 “葦, 一作暴。”이라고 하였다. 즉, 畢字가 楚簡에서 暴으로 쓰이는 것은 假借用法이다.³⁷⁾

37) 禰健聰, <上博楚簡釋字三則>, 簡帛研究網(<http://www.jianbo.org>), 2005年4月15日.

사실상 禩氏에 앞서 劉國勝(1999)이 이미 郭店楚簡의 𠄎字를 畢로 釋讀한 바 있으나³⁸⁾, 上博楚簡에서 관련 자형이 계속 등장하면서 이 글자를 暴으로 읽는 것이 확실해졌기 때문에 그의 설을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그런데 禩說대로 畢과 暴의 음성적 관련성을 인정한다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古文字 字形에 근거하여 보았을 때, 劉氏와 禩氏의 자형 분석은 대단히 설득력이 있다는 사실이다.

【字形表-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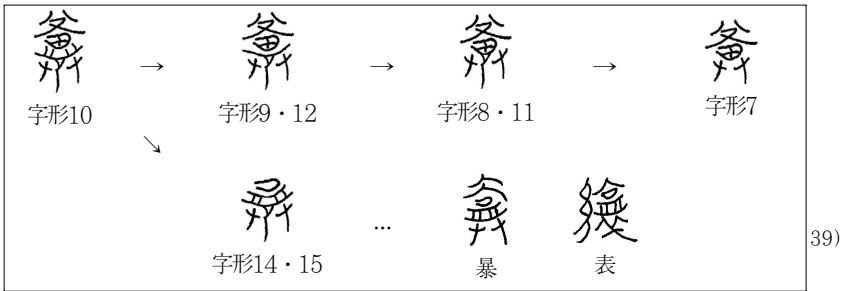
 畢 1) 西周初期·周原甲骨45	 畢 2) 西周初期·史籒	 畢 3) 西周初期·召卣	 畢 4) 西周中期·段簋
 畢 5) 春秋·邾公華鐘	 畢 6) 戰國·楚·包山2.158	 畢 7) 戰國·楚·包山2.159	 畢 8) 戰國·楚·包山2.173
 畢 9) 戰國·楚·包山2.182	 畢 10) 戰國·楚·包山2.140	 遲 11) 戰國·楚·包山2.74	 遲 12) 戰國·楚·包山2.93
 鄆 13) 戰國·楚·包山2.44	 遲 14) 戰國·楚·上博(二).容1	 遲 15) 戰國·楚·上博(二).容9	

畢字의 初形本義는 ‘수렵용 그물’이다. 字形1에서 田은 田獵을 의미하고, 그 아래의 ㇇은 손잡이 달린 그물의 象形이다. 金文의 字形은 좀 더 구체적인데, 그물코의 모양도 묘사되어 있다(字形3·4). 字形5는 아랫부분에 두 손의 象形

38) 劉國勝, <郭店楚簡釋字八則>, 《武漢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1999年第5期, 42-43쪽.

인 収를 덧붙였고, 楚簡文字들은 여기에다 网까지 추가하여 그물이란 의미를 강조하였다. 가장 완전한 形體는 字形10인데 𠄎(网)·田(田)·𠄎(畢)·𠄎(収)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金俊秀(2007)는 이상 字形의 演變過程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 바 있다.

【字形表-06】



대단히 흥미로운 사실은 字形의 간략화가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첫 번째는 字形의 가운데에 위치한 손잡이 달린 그물의 象形인 ‘畢’을 줄여 쓰는 쪽으로 진행되어 결국 字形7과 같이 网·田·収만 남고 말았다. 包山楚簡에 보이는 字形은 대개 이 부류에 속한다. 두 번째는 字形의 윗부분을 줄여 쓰는 쪽으로 진행되어 网을 생략하고 田도 𠄎과 같이 썼는데 《上博(二)·容成氏》의 漚字가 따르는 畢旁(字形14·15)이 바로 이런 형체이다. 楚簡에서 暴으로 釋讀되는 字形들의 下半部는 의심할 바 없이 바로 이 부류의 畢字이다. 그리고 《上博(三)·彭祖》에서 表로 읽는 𠄎의 聲旁인 𠄎 역시 이 부류에 속하는 畢字의 생략체임에 틀림없다. 다만 𠄎·𠄎·𠄎의 윗부분 𠄎·𠄎·𠄎이 무엇 인지는 아직 未詳이다.

楚簡文字에서 暴으로 읽히는 이 글자들이 왜 畢旁을 따르는 것일까? 暴이건

39) 金俊秀, 《《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四)》疑難字研究》, 臺北: 花木蘭出版社, 2008年9月第1版, 68쪽. 原本: 金俊秀, 《《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四)》疑難字研究》, 臺北: 國立臺灣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2007年6月.

藏이건 畢과 어떠한 의미적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역시 畢旁을 聲符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畢과 暴의 古音關係가 전통 古音學으로는 잘 해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畢字의 上古音은 幫母質部에 속하고, 暴字는 일반적으로 並母藥部에 귀속시키는데, 幫母와 並母는 같은 唇音에 속하지만 質部와 藥部는 가깝지 않다. 質部는 乙類韻部에 속하고 藥部는 甲類韻部에 속하는데, 甲類와 乙類는 일반적으로 서로 諧聲·通假하지 않는다.⁴⁰⁾ 禰文에서 古書의 通假例를 들었지만, 겨우 一例에 불과하다. 下文에서 畢과 暴의 韻母 通轉에 관하여 토의한다.

5. 質部二分說

윌리엄 백스터(William H. Baxter 1980)는 上古漢語의 *-ik이 방언에 따라 *-ek(錫部) 혹은 *-it(質部)과 합류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其師인 니컬러스 보드먼(Nicholas C. Bodman 1980)은 티베트·버마語群의 언어에서 軟口蓋破裂音 韻尾를 지닌 어휘와 軟口蓋鼻音 韻尾를 지닌 어휘가 각각 質部字와 眞部字에 대응하는 예를 열거하면서 質部字와 眞部字의 일부는 *-ik과 *-iŋ에서 *-it과 *-in으로 변해 온 것이라고 하였다.⁴¹⁾ 鄭張尙芳(1981)은 質部를 *-ik과 *-it으로 나누고, 眞部를 *-iŋ과 *-ik으로 나누었는데⁴²⁾, 이로써 甲類韻

40) 王力(1978)은 上古韻部를 韻尾에 따라 甲類(-0·-k·-ŋ)·乙類(-i·-t·-n)·丙類(-p·-m)로 大別하였다. 王力, <同源字論>, 《王力語言學論文集》, 北京: 商務印書館, 2003年4月第2刷, 536-537쪽. 原掲載: 《中國語文》, 1978年第1期.

41) William Hubbard Baxter, "Some Proposals on Old Chinese Phonology", *Contributions to Historical Linguistics: Issues and Materials*, Leiden: E.J. Brill, 1980年, 18쪽. Nicholas Cleaveland Bodman, "Proto-Chinese and Sino-Tibetan: Data Towards Establishing the Nature of the Relationship", *Contributions to Historical Linguistics: Issues and Materials*, Leiden: E.J. Brill, 1980年, 157-158쪽. 니컬러스 보드먼의 논문은 中譯本이 있다. 潘悟雲譯, <原始漢語與漢藏語: 建立兩者之間關係的若干證據>, 《原始漢語與漢藏語》, 北京: 中華書局, 2009年2月第2刷.

42) 鄭張尙芳, <漢語上古音系表解>, 《語言》第四卷, 北京: 首都師範大學出版社, 2003年12

部와 乙類韻部의 경계를 넘는 예외적인 현상이 왜 脂部·質部·眞部に 집중되어 나타나는지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다음아닌 前舌母音인 -i의 영향으로 韻尾 -k와 -ŋ이 -t와 -n으로 변했던 것인데, 本稿에서 토론하고 있는 暴字과 畢字의 韻尾와 관계있는 -k와 -t에 한정시켜 본다면 다음과 같은 諧聲字가 이 音變의 증거로 제시된다.

主諧字	卽 즉 (職韻)	益 익 (昔韻)	匿 닉 (職韻)	乙 을 (質韻)	血 혈 (屑韻)	陟 척 (職韻)
被諧字	節 절 (屑韻)	溢 일 (質韻)	暱 닐 (質韻)	臆 억 (職韻)	洫 혁 (職韻)	鴛 즐 (質韻)

전통 質部에서 *-ik으로부터 유래한 글자를 변별해 내는 주요한 근거는 역시 諧聲字이다. 즉, ㄷ聲系와 같이 동일한 諧聲系列에서 中古韻尾가 -k인 글자(卽)와 -t인 글자(節)가 혼재하여 등장하면, 해당 諧聲系列에 속하는 글자들의 上古韻尾는 본래 모두 軟口蓋破裂音이었는데, 일부가 齒槽破裂音으로 변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諧聲字 외에 親族言語의 同源語彙 역시 중요한 근거가 된다. 예를 들어 鄭張體系(2003)에서 蝨字의 再構音은 *srig이고⁴³⁾, 鐵字의

月, 23쪽·25쪽. 原發表: 浙江省語言學會首屆年會, 1981年9月20日-24日.

43) 폴 베네딕트(Paul K. Benedict 1948)는 이(louse)의 原始 티베트·버마語를 *srik으로 再構하고, 上古漢語 *siet(蝨)은 여기에서 변한 것인데, 前舌高母音의 영향으로 韻尾가 -k에서 -t로 변화하였다고 주장하였다. Paul King Benedict, "Archaic Chinese *g and *d",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Vol.11, No.1/2, 1948年, 199쪽. 龔煌城(2000) 역시 유사한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再構하였다. 上古漢語: *srjik > *srjit 蝨(質部) / 티베트語: shig 이(louse) / 原始 티베트·버마語: *s-rik 이(louse) 龔煌城, <從漢藏語的比較看上古漢語的詞頭問題>, 《漢藏語研究論文集》中國大陸版,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4年9月第1版, 163쪽. 原掲載: 《語言暨語言學》2000年第1卷第2期.

質部의 核母音을 *i로 再構한 것은 李方桂上古音體系(1971)의 큰 특징이자 上古音 연구에 있어서의 위대한 업적으로서 후세 상고음 연구자들에 의해 계승되었다. 龔煌城은 일평생 李方桂體系를 이용하여 上古漢語와 티베트語의 同源語彙 비교 연구를 하였는데, 蝨은 《切韻》音系에서 審母二等字이므로 介音*-r-을 추가시키고 質部字이므로 核母音을 *i로 再構함으로써, 베른하르트 칼그렌(K. Bernhard J. Karlgren)의 上古再構音에 근거한 폴 베네딕트보다 더욱 密合한 결과를 얻어내었다. 鄭張體系(2003)의 再構音 *srig도 龔煌城의 *srjik과 기본적으로 유사한 구조인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1) 상고시기에 介音*j-는 존재하지 않았다. 2) 中古의 -p·-t·-k는 上古의 -b·-d·-g에서 演

再構音은 *hl'i:g(*qhl'i:g)인데⁴⁴), 두 글자 모두 諧聲關係에 근거해서는 韻尾가 본래 軟口蓋破裂音이었다는 것을 알 수 없지만, 親族言語와의 同源語彙 비교가 이러한 再構를 가능하게 하였다.

6. 畢字의 上古音

니컬러스 보드먼(Nicholas C. Bodman 1980)은 제임스 매티소프(James A. Matisoff 1970)가 재구한 原始 彝-버마語(Proto Lolo-Burmese) *pyik(수풀·덤불·복잡하게 얽힌 것)을 筆字의 同源語彙로 대응시켰다.⁴⁵ 《說文·竹部》: “筆, 藩落也。從竹, 畢聲。《春秋傳》曰: ‘筆門圭齋。’ 卑吉切。” (筆, 나뭇가지를 엮어 만든 울타리이다. 竹에서 의미를 얻고, 畢에서 소리를 얻는다. 《春秋傳》에서 ‘사립문 달린 오막살이’⁴⁶)라고 하였다. ‘필’이라고 읽는다.) 웰던

變되어 왔다.

B-S體系(2011)의 再構音은 *srit로, 韻尾를 齒槽破裂音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건데 親族言語와의 同源關係는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Baxter-Sagart Old Chinese reconstruction(Version 1.00, 2011年2月20日), Centre de Recherches Linguistiques sur l'Asie Orientals(東亞語言研究所), <http://crlao.ehess.fr/document.php?id=1217>

44) 張琨(1972)은 쇠(iron)의 原始 漢·티베트語를 *q^hleks로 再構하였다. Kun Chang, “Sino-Tibetan ‘Iron’: *qhleks”, *Journal of the American Oriental Society*, Vol.92, No.3, 1972年, 436-446쪽. 中譯本은 다음과 같다. 張連生譯, <漢藏語系的鐵*qhleks字>, 《漢藏語系語言學論文選譯》,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0年第1版, 161-174쪽.

B-S體系(2011)에서도 鐵字의 上古音을 *ʃik과 같이 軟口蓋音韻尾로 再構하였다. Baxter-Sagart Old Chinese reconstruction(Version 1.00, 2011年2月20日), Centre de Recherches Linguistiques sur l'Asie Orientals(東亞語言研究所), <http://crlao.ehess.fr/document.php?id=1217>

45) James Alan Matisoff, “Glottal Dissimilation and the Lahu High-Rising Tone: A Tonogenetic Case-Study”, *Journal of the American Oriental Society*, Vol.90, No.1, 1970年, 26쪽. Nicholas Cleaveland Bodman, “Proto-Chinese and Sino-Tibetan: Data Towards Establishing the Nature of the Relationship”, *Contributions to Historical Linguistics: Issues and Materials*, Leiden: E.J. Brill, 1980年, 158쪽.

46) 傅世本 《左傳》에는 ‘筆門閭竇’로 되어 있다. 《左傳·襄公十年》: “王叔之宰曰: ‘筆門閭竇之人而皆陵其上, 其難爲上矣。’” (王叔의 家臣 中的 우두머리가 말했다. “사립문 달린 오막살이에 사는 비천한 사람까지 윗사람을 능멸하려고 드니, 윗분들께서는 참으로 거북해하

코블린(Weldon S. Coblin 1986) 역시 *pyik와 篲 사이의 同源關係를 인정하고 篲字의 古音を 다음과 같이 재구하였다 : *pjik(原始漢語) > *pjit(上古漢語).⁴⁷⁾

《說文》에 수록되어 있는 畢聲系字는 篲을 포함하여 11字인데, 丌聲系나 益聲系와 달리 同一聲系에 中古韻尾가 -k인 글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런 경우 이 聲系의 글자들이 *-ik에서 왔는지를 판단하려면 諧聲字 이외의 자료에서 증거를 찾아야 한다. 畢聲字인 篲이 *pyik과 대응한다는 것은 畢聲系字의 韻母가 본래 *-ik이었음을 강력히 암시하는 증거이기는 하지만, 漢語外部證據에만 의존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을 감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漢語外部證據와 漢語內部證據가 맞물리는 것인데, 楚簡에서의 畢字의 用法이 유력한 漢語內部證據로 제시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第4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楚簡文字에서 暴으로 읽는 글자들은 《說文》 小篆 계통의 暴字와는 구조가 다르며, 字形上 畢字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畢이 藥部字인 暴과 古音關係가 있다는 것은 그 上古韻尾가 軟口蓋破裂音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前述한 바와 같이 전통 古音學으로는 暴과 畢의 음성적 관련성을 설명할 수 없었으나, 이상의 토의에 근거하여 本稿는 다음과 같은 修正再構音을 제시한다.

	上古音	中古音	現代音
鄭張體系再構音 (2003)	*pid 質1部	pit 卑吉切	필 / pi\
本稿提示案	*pig 質2部	(幫母質韻開口重紐四等入聲)	
B-S體系再構音 (2011)	*pit	pjit 卑吉切	
本稿提示案	*pik	(幫母質韻開口重紐四等入聲)	

48)

시오.”)

47) Weldon South Coblin, *A Sinologist's Handlist of Sino-Tibetan Lexical Comparisons*, Nettetal: Steyler Verlag, 1986年, 148쪽.

48) 鄭張尚芳, 《上古音系》, 上海: 上海教育出版社, 2003年12月第1版, 275쪽. Baxter-

이상의 연구를 통해, 上古時期 暴과 畢의 聲母와 韻尾가 매우 가까웠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으나, 母音은 어느 정도 거리가 있다는 문제점이 남는다. 畢을 暴으로 읽는 것은 楚簡에만 보이는 특이한 용법인데, 이 용례가 上古楚方言의 어음적 특징을 반영하는 것일까? ‘一傳衆咻’나 ‘南蠻馱舌’의 典故를 통해서 볼 때, 先秦時期 각지 방언의 차이는 이미 극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비록 각지에 방언이 존재하였지만 귀족들은 공통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雅言에도 능통하였고, 그들이 문자 생활에 사용하였던 것이 바로 이 雅言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⁴⁹⁾ 노나라 사람인 孔子도 誦詩 贊禮할 때에는 산둥 방언이 아닌 雅言을 사용하였다고 하지 않았던가. 《論語·述而》: “子所雅言, 《詩》·《書》·執禮, 皆雅言也.”(선생님께서서는 《詩經》의 시를 읊으실 때, 《尚書》를 읽으실 때, 예식을 집전하실 때에는 雅言을 사용하셨는데, 그럴 때는 한 마디 방언도 섞지 않으셨다.) 그런데, 당시 각 지역에서 사용되었던 雅言이 현대의 표준 중국어(普通話/Modern Standard Chinese)처럼 고도의 규범성을 가지고 있었을까? 서로간의 소통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약간의 지역적 특색을 띄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비교적 합리적일 것이다. 楚簡에 보이는 일부 특수한 구조의 문자는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한다. 예를 들어, 본래 侵部(*-um)에 속하였던 夨(朕의 初文, 金文 이후 夨과 같이 夨)聲系字는 대부분 被諧字(滕·藤·騰·騰·勝)가 蒸部((*-uŋ)로 音變하였는데, 楚簡文字에서는 夨이 길이를 세는 단위인 ‘寸’으로 쓰인다.⁵⁰⁾ 또한

Sagart Old Chinese reconstruction (Version 1.00, 2011年2月20日), Centre de Recherches Linguistiques sur l'Asie Orientales (東亞語言研究所),
<http://crlao.ehess.fr/document.php?id=1217>

- 49) 喻世長, <用諧聲關係擬測上古聲母系統>, 《音韻學研究》第1輯, 北京: 中華書局, 1984年3月, 183쪽. 大西克也, <楚の言語について 一戰國楚簡を中心に一>, 《日中文化研究》第10號, 東京: 勉誠社, 1996年8月, 121-129쪽. 鄭張尙芳, 《上古音系》, 上海: 上海教育出版社, 2003年12月第1版, 6-7쪽. 金俊秀, <諧聲字的地區問題: 上古漢語的方言分歧>·<諧聲字的地區問題: 先秦的共同語雅言>, 《古文字特殊諧聲研究》, 臺北: 國立臺灣師範大學國文研究所博士學位論文, 2011年6月, 14-32쪽.
- 히라타 쇼오지(平田昌司)의 최근 논문에서도 東周列國의 卿大夫 및 상인들은 자신의 지역 방언 외에 華夏通語에도 능통한 二個言語 혹은 多個言語 구사자였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견해를 볼 수 있다. 平田昌司, <上古漢語與古方言文獻>, 《第四屆國際漢學會議》, 臺北: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 2012年6月20日-22日, 1-9쪽.

尊을 ‘審’과 같이 쓰며⁵¹⁾, 孫을 ‘恣’과 같이 쓰는데⁵²⁾, 審과 恣에서 夨는 聲旁으로 쓰인 것임에 틀림없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寸·尊·孫이 모두 文部字(*-u n)라는 것이다.

	上古音	中古音	現代音
寸	*s ^h u:ns 文2部	ts ^h uən 倉困切 (清母魂韻合口一等去聲)	촌 / ts ^h uən ↘
尊	*ʔsu:n 文2部	tsuən 祖昆切 (精母魂韻合口一等平聲)	존 / tsuən ㄱ
孫	*su:n 文2部	suən 思渾切 (心母魂韻合口一等平聲)	손 / suən ㄱ
恣	*su:ns 文2部	suən 蘇困切 (心母魂韻合口一等去聲)	손 / cyn ↘
朕	*l ^ʷ umʔ 侵1部	dʒim 直稔切 (澄母侵韻開口三等上聲)	짐 / tʃən ↘
滕	*l ^ʷ u:ŋ 蒸部	dəŋ 徒登切 (定母登韻開口一等平聲)	등 / t ^h əŋ ㄱ
勝	*hljuŋs 蒸部	eiŋ 識蒸切 (書母蒸韻開口三等去聲)	승 / ʃəŋ ↘

風과 鳳이 凡에서 소리를 얻고, 贗(陟降切)이 贗(古禪切)에서 소리를 얻고, 《說文》에서는 熊이 炎에서 소리를 얻는다고 풀이되어 있는⁵³⁾ 등 諧聲時期에

- 50) 劉國勝, <信陽長台關楚簡<遺策>編聯二題>, 《江漢考古》2001年第3期, 66-67쪽.
- 51) 荊門市博物館編·裘錫圭案語, 《郭店楚墓竹簡》, 北京: 文物出版社, 1998年5月第1版, 174쪽. 陳偉, 《郭店竹書別釋》, 武漢: 湖北教育出版社, 2003年1月第1版, 135쪽.
- 52) 沈培, <上博簡<緇衣>篇恣字解>, 《華學》第6輯, 北京: 紫禁城出版社, 2003年6月, 68-74쪽.
- 53) 《說文》에서 熊을 炎聲字로 풀이한 것으로 보아 後漢까지도 熊字의 韻尾는 -m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후에 대부분 방언에서는 -ŋ으로 변하였지만, 廈門語의 白話音에서는 him24으로 읽어 여전히 -m 韻尾를 보존하고 있다. 熊字의 韻尾 문제에 있어서 한국어의 上古時期 차용어인 ‘곰’과 일본어 ‘くま’가 방증자료로 제시된다. 潘悟雲, 《漢語歷史音韻學》, 上海: 上海教育出版社, 2000年7月第1版, 240쪽. 《說文》의 자형분석은 熊字의 上古韻尾 再構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해주지만, 사실상 熊은 본래 能과 大를 따르는 글자이다. 즉, 熊

韻尾가 본래 兩脣鼻音이었던 글자들이 軟口蓋鼻音韻尾字로 변한 경우가 종종 보이는데, 朕에서 소리를 얻는 滕이나 勝 역시 이러한 경우이다. 그런데 陽聲韻 사이의 旁轉을 보면 -n은 -n 외에 -ŋ과도 통하고, -m은 -m 외에 -ŋ과 통하지만, -n과 -m이 통하는 경우는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 元部는 眞部·諄部(文)部·耕部·陽部와 旁轉하고, 談部는 侵部·添部·陽部·東部와 旁轉한다.⁵⁴⁾ 沈培(2003)는 戰國時代에 夨 및 그 被諧字의 韻尾가 이미 -m에서 -ŋ으로 변했고, 楚簡文字에서 夨이 文部字와 通諧關係가 있는 것은 -ŋ와 -n의 혼동에 기인한다고 주장하며, 현대 방언 중에도 이러한 예가 있다고 하였다.⁵⁵⁾ 주지하듯 北方官話에서 韻尾 -n과 -ŋ은 대립되는 音素이지만, 일부 남방사람(특히 南京人·福建人⁵⁶⁾)들이 구사하는 표준 중국어에서는 兩者가 잘 구분되지 않는다. 個別方言의 내부적으로도 이런 현상이 보이는데, 粵語의 경우 北方官話와 마찬가지로 본래 韻尾 -n과 -ŋ을 구분하지만 懶音(Relaxed pronunciation)에서는 혼동현상이 있어서 粵語正音運動(Proper Cantonese pronunciation)에서 시정해야 할 발음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리하자면 中州 雅言에서는 -m > -ŋ의 韻尾 변화를 한 夨 및 그 被諧字가 楚簡文字에서 韻尾가 -n인 文部字와 通諧 관계가 있다는 것은, 비록 楚地 士族들의 문자 생활도 기본적으로 雅言에 의거한 것이었지만, 그들의 雅言은 현재의 남방사람들이 구사하는 표준 중국어처럼 지역적 특색을 일부 띠고 있었을

이 따르는 ‘...’는 炎과 전혀 무관하며, 大의 訛變에 불과하다. 季旭昇師, <從新蔡葛陵簡說‘熊’字及其相關問題>, 《第十五屆中國文字學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臺北: 私立輔仁大學中國文學系, 2004年4月17-18日.

- 54) 陳新雄師, 《古音研究》, 臺北: 五南圖書有限公司, 2000年11月第2刷, 467-473쪽.
- 55) 沈培, <上博簡<緇衣>篇‘夨’字解>, 《華學》第6輯, 北京: 紫禁城出版社, 2003年6月, 68-74쪽.
- 56) 예를 들어, 南京 시내의 도로 표지판에는 延齡巷의 한어병음 표기가 YANG LING XIAN으로 되어있고, 대만의 요식업체 鼎泰豐의 영문표기는 DIN TAI FUNG이다.



것이라는 추론을 가능케 한다. 다시 暴과 畢의 관계로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이 역시 楚地 雅言의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는 一例일 가능성은 충분하다. 虤(虤)字와 曷(曷)字가 이미 존재하는데 구태여 畢을 聲旁으로 하여 새로운 글자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보면 이러한 의문은 더욱 깊어지지만, 관련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현시점에서 이것은 추후의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7. 結論

‘짜다 폭(暴)’의 造字本義는 ‘두 손(収)으로 풀(丰)을 들고 나와 햇빛(日)에 말리다’이다. ‘曷’은 隸變을 거쳐 ‘昊’와 같이 訛變되었고, 丰의 형태가 알아볼 수 없게 된 까닭에 隸書에서 米를 추가하여 ‘暴’과 같이 쓰는 자형이 등장하였으나, 후세에 米마저도 水로 변하여 ‘暴’과 같이 쓰게 되었다. ‘사납다 포(虤)’의 造字本義는 ‘창(戈)으로 범(虎)을 공격하다’이다. 《周禮》에서는 戈가 武로 바뀌어 ‘虤’와 같이 자형으로 쓰여 있다. 그런데 늦어도 전국시대부터 虤字는 점차 쓰이지 않게 되었고, ‘사납다 포’도 暴字를 빌려 기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楚簡에서 ‘짜다 폭’ 혹은 ‘사납다 포’로 읽히는 글자는 그 구조가 暴 혹은 虤와 무관하며, 형태상 畢字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暴과 畢은 둘 다 唇音字로서 聲母는 가깝지만, 暴은 藥部 혹은 屋部에 속하고 畢은 質部에 속하여 韻母가 가깝지 않다. 과거 質部字의 韻尾는 모두 齒槽破裂音이었다고 여겨졌으나, 新派 고음학자들에 의해서 일부 質部字는 韻尾가 본래 軟口蓋破裂音이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鄭張體系에서는 전통 質部를 둘로 나누어 質1部를 *id로 재구하고, 質2部를 *ig으로 재구하였다. B-S體系에서도 質部를 *-it와 *-ik 두 부류로 나누었다.

畢聲系字의 경우 中古韻尾가 모두 -t이므로, 諧聲系列에만 근거하여서는 그 韻尾가 본래 -k(혹은 -g)였는지를 알 수 없지만, 筆字와 原始 彝-버마語 *pyik

사이의 同源關係는 畢聲系字의 韻尾가 본래 軟口蓋破裂音이었음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楚簡文字에서 畢字가 藥部 혹은 屋部에 귀납되는 暴字와 음성적 관련성이 있다는 것도 역시 상고시기 畢字의 韻尾가 軟口蓋破裂音이었음을 시사하는 一例로 판단된다. 이에 本稿는 다음과 같은 再構音을 제시한다: *pig(鄭張體系) / *pik(B-S體系).

< 參考文獻 >

- 大西克也, <楚の言語について 一戰國楚簡を中心に一>, 《日中文化研究》 第10號, 東京: 勉誠社, 1996.
- 王力, 《王力語言學論文集》, 北京: 商務印書館, 2000.
- 中華民國教育部國語推行委員會, 《異體字字典》, <http://dict.variants.moe.edu.tw>.
- 古文字詁林編纂委員會, 《古文字詁林》 第4冊, 上海: 上海教育出版社, 2001.
- 古屋昭弘, <儒教と中國語學 一出土文獻と上古音一>, 土田健次郎編, 《近世儒學研究の方法と課題》, 東京: 汲古書院, 2006.
- 平田昌司, <上古漢語與古方言文獻>, 《第四屆國際漢學會議》, 臺北: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 2012.
- 何琳儀, 《戰國文字通論(訂補)》, 南京: 江蘇教育出版社, 2003.
- 李零, 《郭店楚簡校讀記(增訂本)》,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2.
- 沈培, <上博簡<緇衣>篇'怨'字解>, 《華學》 第6輯, 北京: 紫禁城出版社, 2003.
- 季旭昇師主編, 《<<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二)>>讀本》, 臺北: 萬卷樓圖書股份有限公司, 2003.
- 季旭昇師, 《說文新證》 下冊, 臺北: 藝文印書館, 2004.
- 季旭昇師, <從新蔡葛陵簡說'熊'字及其相關問題>, 《第十五屆中國文字學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臺北: 私立輔仁大學中國文學系, 2004.
- 季旭昇師主編, 《<<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三)>>讀本》, 臺北: 萬卷樓圖書股份有限公司, 2005.
- 周鳳五, <郭店<性自命出>'怒欲盈而毋暴'說>, 《新出土文獻與古代文明研究》, 上海: 上海大學出版社, 2004. 原發表: 新出土文獻與古代文明國際學術研討會, 上海: 上海

大學, 2002.

周鳳五, <讀上博楚竹書<從政>甲篇筭記>, 《上博館藏戰國楚竹書研究續編》, 上海: 上海書店出版社, 2004. 原發表: 簡帛研究網(<http://www.jianbo.org>), 2003.

周波, <'侮'字歸部及其相關問題考論>, 《紀念中國古文字研究會成立三十週年國際學術研討會》, 吉林: 長春大學古籍研究所, 2008.

金俊秀, 《〈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四)〉疑難字研究》, 臺北: 花木蘭出版社, 2008. 原本: 金俊秀, 《〈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四)〉疑難字研究》, 臺北: 國立臺灣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2007.

金俊秀, 《古文字特殊諧聲研究》, 臺北: 國立臺灣師範大學國文研究所博士學位論文, 2011.

金俊秀, <'造'字諧聲攷>, 《中國言語研究》第38輯, 서울: 韓國中國言語學會, 2012.

袁仲一·劉鈺, 《秦文字類編》, 西安: 陝西人民教育出版社, 1993.

徐在國, <上博竹書(三)札記二則>, 《古文字研究》第27輯, 北京: 中華書局, 2008. 原發表: 簡帛研究網(<http://www.jianbo.org>), 2004.

唐蘭, <用青銅器銘文來研究西周史 — 綜論寶鷄市近年發現的一批青銅器的重要歷史價值>, 《文物》1976.

荊門市博物館編·裘錫圭案語, 《郭店楚墓竹簡》, 北京: 文物出版社, 1998.

馬承源主編, 《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五)》,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5.

陳劍, <上博簡<容成氏>的拼合與編連問題小議>, 《上博館藏戰國楚竹書研究續編》, 上海: 上海書店出版社, 2004. 原發表: 簡帛研究網(<http://www.jianbo.org>), 2003.

陳新雄師, 《古音研究》, 臺北: 五南圖書有限公司, 1999.

梅祖麟, <從楚簡散(美)'字來看脂微兩部的分野>, 《語言學論叢》第32輯, 北京: 商務印書館, 2006.

喻世長, <用諧聲關係擬測上古聲母系統>, 《音韻學研究》第1輯, 北京: 中華書局, 1984.

裘錫圭, <說'玄衣朱襪' — 兼釋甲骨文'𠂔'字>, 《文物》1976第12期.

裘錫圭, 《文字學概要》臺灣正體版, 臺北: 萬卷樓圖書股份有限公司, 1993.

趙彤, 《戰國楚方言音系》, 北京: 中國戲劇出版社, 2006. 原本: 趙彤, 《戰國楚方言音系研究》, 北京: 北京大學博士學位論文, 2003.

潘悟雲, 《漢語歷史音韻學》, 上海: 上海教育出版社, 2000.

劉釗, <讀郭店楚簡字詞札記>, 《郭店楚簡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武漢: 武漢大學, 2000.

劉釗, <釋'償'及相關諸字>, 《出土簡帛文字叢考》, 臺北: 臺北古籍出版有限公司, 2004.

原揭載：《中國文字》新28期，2002。

劉國勝，〈郭店楚簡釋字八則〉，《武漢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1999年第5期。

劉國勝，〈信陽長台關楚簡〈遺策〉編聯二題〉，《江漢考古》2001年第3期，2001。

鄭張尚芳，〈漢語上古音系表解〉，《語言》第四卷，北京：首都師範大學出版社，2003。原發表：浙江省語言學會首屆年會，1981年。

鄭張尚芳，〈上古音系〉，上海：上海教育出版社，2003。

禰健聰，〈上博楚簡釋字三則〉，簡帛研究網(<http://www.jianbo.org>)，2005。

龔煌城，〈從漢藏語的比較看上古漢語的詞頭問題〉，《漢藏語研究論文集》中國大陸版，北京：北京大學出版社，2004。原揭載：《語言暨語言學》2000第1卷第2期。

Baxter, William Hubbard, "Some Proposals on Old Chinese Phonology", *Contributions to Historical Linguistics: Issues and Materials*, Leiden: E.J. Brill, 1980.

Baxter, William Hubbard, 〈‘弑’、‘勢’、‘設’等字的構擬和中古sy-（書母=審三）的來源〉，《簡帛》第5輯，上海：上海古籍出版社，2010。

Baxter-Sagart Old Chinese reconstruction (Version 1.00, 2011年2月20日), Centre de Recherches Linguistiques sur l'Asie Orientales (東亞語言研究所), <http://crlao.ehess.fr/document.php?id=1217>.

Benedict, Paul King, "Archaic Chinese *g and *d",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Vol.11, No.1/2, 1948.

Bodman, Nicholas Cleaveland, "Proto-Chinese and Sino-Tibetan: Data Towards Establishing the Nature of the Relationship", *Contributions to Historical Linguistics: Issues and Materials*, Leiden: E.J. Brill, 1980。中譯本：潘悟雲譯，〈原始漢語與漢藏語：建立兩者之間關係的若干證據〉，《原始漢語與漢藏語》，北京：中華書局，1995。

Chang, Kun, "Sino-Tibetan 'Iron': *qhleks", *Journal of the American Oriental Society*, Vol.92, No.3, 1972。中譯本：張連生譯，〈漢藏語系的鐵*qhleks字〉，《漢藏語系語言學論文選譯》，北京：中國社會科學出版社，1980。

Coblin, Weldon South, *A Sinologist's Handlist of Sino-Tibetan Lexical Comparisons*, Nettetal: Steyler Verlag, 1986。

Matisoff, James Alan, "Glottal Dissimilation and the Lahu High-Rising Tone: A Tonogenetic Case-Study", *Journal of the American Oriental Society*, Vol.90, No.1, 1970。

< 中文提要 >

畢字有兩個來源，其一本作“曩”，從日從丰從収，會兩手持草於日下曝曬之意。隸書增益米旁作“暴”形，漢以後米旁訛為水，遂作“暴”；其二本作“𪔐”，從戈從虎，會以戈搏虎之意，《周禮》作“𪔐”，戈改為武，作用相等。戰國以後漸漸以暴代𪔐，後世則“暴”專行而“𪔐”廢矣。

楚簡裏有一個字或讀“暴”或讀“𪔐”，然其結構與“暴”、“𪔐”判然有別，而以“畢”為聲。“暴”、“畢”為唇音字，然二字韻部不相近，“暴”或歸藥部或歸屋部，收舌根塞音尾，“畢”則屬於質部。過去以為質部字全收舌尖塞音尾，而新派古音學家認為一部分質部字本收舌根塞音尾，至中古演變為屑韻、質韻、術韻、櫛韻、黠韻是因為前高元音-i所影響。鄭張體系將傳統質部分作二類，第一類稱作“質1部”，擬作*-id；第二類稱作“質2部”，擬作*-ig。B-S體系亦將質部分為二，即*-it與*-ik。

畢聲系字中古全收-t尾，因此僅據諧聲系列則無從判斷其韻尾是否本收-k。本文認為，“𪔐”字與原始彝緬語*pyik之間的同源關係暗示畢聲系字在上古時期收-k尾。楚簡所見“畢”與“暴”之間的關係支持此一設想，楚簡文字裏“畢”字之所以能夠充當“暴”或“𪔐”的聲旁，應該是因為戰國中晚期“畢”字仍收舌根塞音尾。據此，本文提出如下修改建議：*pig(鄭張體系) / *pik(B-S體系)。

關鍵詞：畢、暴、上古音、楚簡文字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2. 8. 31.	2012. 11. 5.	2012. 11. 11.	2012. 11. 21.	2012. 11. 30.